

## 우리나라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갖는 효과와 의미

이 병 민  
(서울대학교)

---

Lee, Byung min. (2002). An early English education: Its effects and significance in the Korean EFL context.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 13-37.*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ole of the age factor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in Korean English education. 'The younger, the better', under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has recentl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introduction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to young children in Korea and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seem to be highly dependent upon the hypothesis when they decide children's English education. For example, the English education program in Korean elementary schools is an offspring of this theory. This study, however, casts a doubt on the effect of age on English education by reviewing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focusing on whether age or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is a meaningful factor to validate the early exposur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its following success. Findings from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US, French immersion programs in Canad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studies dealing with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were critically reviewed to provide evidences to such argument that age is not a primary factor to determine ear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On the contrary, time or the amount of exposure to the English language should be a more critical factor in a context where a very limited exposure to the target language is only possible. A list of generalizations and implications are also provided.

---

## I. 들어가는 말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영어교육이 시작된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었다. 특히 조기영어교육 ‘열풍’으로 표현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사교육의 확대와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조기영어교육이 현재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가 처한 언어 환경적인 조건에서 조기영어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정보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삶의 공간에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영어교육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기영어교육이 갖는 효율성과 의미를 실증적인 연구 사례를 통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영어 조기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연구들을 통해서 조기에 영어에 노출시켜서 학습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조기영어교육이란?

현재 ‘영어조기교육’ 또는 ‘조기영어교육’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의 검색 결과 ‘조기영어교육’이라고 했을 때 약 3,750개가 검색되었고, ‘영어조기교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을 때 1,400개가 검색되었다<sup>1)</sup>. 영어교육을 조기에 시킨다는 의미에서 ‘조기영어교육’이 다른 부문에 대한 조기교육과 대비할 수 있는 의미의 ‘영어조기교

1) 이러한 내용은 2002년 10월 11일 구글(google) 검색엔진의 일반 문자 검색을 이용한 결과이다.

육'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조기에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늦추어 청소년 시기에 시작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조기영어교육이라고 할 때 정확히 언제 시작하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지칭하는지 확실치 않다.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웹 페이지를 활용하였다. 대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0세에서 6세까지 기간에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이 뛰어난 언어학습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이 시기에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 인식인 것 같다.<sup>2)</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턴 영어 공교육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형태의 영어교육을 조기영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조기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전일제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 주 1-2회 원어민 가정방문을 통한 영어교육, 주 1-2회 가정방문 학습지를 통한 영어교육, 기타 영어 이야기 책, 오디오, 인터넷, 비디오, CD-ROM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II. 논의

### 1. 영어학습에 절대적 시기가 존재하는가?

#### 1.1 조기교육을 통해서 발음은 원어민처럼 가능한가?

흔히 조기영어교육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널리 인용

2) 다음 사이트는 그런 일반인의 인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http://bebehouse.co.kr/newshbebe/content\\_view.asp?HCode=21&MCode=13&LCode=02#a2](http://bebehouse.co.kr/newshbebe/content_view.asp?HCode=21&MCode=13&LCode=02#a2)) 2002년 11월 21일 검색했음.

되는 것이 ‘절대적 시기(critical period)’ 또는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와 관련된 논의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의는 아직도 그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의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한 연구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Birdsong, 1992; 1999; 2001; Birdsong & Molis, 2001; Flege, 1999; Marinova-Todd, Bradford Marshall, & Snow, 2000). 특히 발음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Flege, Frieda와 Nozawa (1997)는 평균 5.8세 (전체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10세 이전에 캐나다에 이민) 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약 18년 이상을 그곳에서 거주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영어 발음을 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록 아주 어린 시절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어도 일상생활에서 이탈리아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모국어 36%정도 사용)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탈리아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모국어 3%정도 사용)보다 확연히 외국인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발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정적 시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이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원어민의 발음과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향은 제2언어습득에서 나이의 영향과 함께, 모국어, 제2언어습득 환경, 제2 언어 사용 빈도 등의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Birdsong & Molis, 2001; Flege, Frieda, Nozawa, 1997).

## 1.2 어떤 환경에서 결정적 시기인가: ESL vs. EFL?

또한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문헌을 이해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기언어교육의 효과와 결정적 시기를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이 우리와 같은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어학습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연구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민 간 나이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 Johnson & Newport, 1989).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언제 모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달리 해석하면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이민을 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만큼 외국어교육환경에서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다음은 결정적 시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한 표이다. 이 표에 나타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표 1] 결정적 시기 가설에 대한 찬반 연구

결정적 시기 있다	결정적 시기 없다	능력이 다르다
Lenneberg (1967)	Bialystok (1997)	Krashen, Long, Scarcella (1979)
Asher & Garcia (1969)	Bialystok & Hakuta (1994), (1999)	Slavoff & Johnson (1995)
Munro, Flege, & MacKay, (1996)	Birdsong (1992), (1999) Birdsong & Molis (2001)	
Oyama (1976)	Flynn & Manuel (1991)	
Tahta, Wood, & Loewenthal (1981)	Ioup, Boustagui, El Tigi, & Moselle (1994)	
Coppieters, (1987)	White & Genesee (1996)	
	Marinova-Todd, Bradford Marshall, & Snow (2000)	
Harley & Hart (1997)	Bongaerts, Planken, Schils (1995)	
Johnson (1992)	Bongaerts, Planken & Schils (1997)	
Johnson & Newport (1989) (1991)	Flege (1999), Flege, Frieda, Nozawa (1997)	
Patkowski (1980)	Flege, Takagi, & Mann (1995)	
Schachter (1990)	Moyer (1999)	
Sorace (1993)	Neufeld (1978), Snow & Hoefnagel-Hoehle (1977), (1978)	

### 1.3 학습 유형의 차이: 암묵적 학습 (Implicit Learning) vs. 명시적

## 학습 (Explicit Learning)

언어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험론적인 접근방법으로 직접적인 노출과 경험을 통해서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학습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암묵적인 학습에 강하다. 즉, 의식적으로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보다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놀이나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보다 우수한 언어 학습 능력을 보여준다. 만약 그 학습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유치원 또래의 어린이들보다는 인지적 학습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형식적이고 상위-인지적 (Meta-cognitive) 조작이 가능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다 빠른 학습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거나, 자전거를 배우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의식적인 학습에 있어서 3-5세의 어린이들보다는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학습상황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8-11세의 어린이들이 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준다. 언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지적 학습인 경우 유치원 또래의 어린이들보다 8-11세나 13-4세에 오히려 더욱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Pakwoski, 1980).

조기에 어린이들에게 언어학습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습의 조건이 암묵적인 방식과 집중적인 몰입교육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DeKeyser (2000)는 이러한 어린이들의 언어습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Children are better than adults at acquiring a language implicitly, ... Implicit acquisition processes, however, require massive amounts of input, which only a total immersion program can provide, not a program consisting of a few hours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per week. (p. 520)

즉, 나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문제는 어린이들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언어환경에 노출되고 엄청난 양의 언어입력에 노출되는 환경

에서는 성인들보다 우수하다는 점이다. 모국어 습득과 관련하여, Birdsong (2001)에 의하면 어린이는 만5세 때까지 약 6백만 번의 발화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어린이는 하루에 약 4천 번의 발화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인위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겨우 1-2시간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즉, 인지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같은 교육방식이나 같은 시간의 노출이면 보다 빠른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다.

#### 1.4 어린이들이 영어를 조기에 배우는 것이 정서적인 문제는 없는가?

조기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흔히 어린이들의 경우에 아무런 심리적 부담감 없이 또래의 친구들과 잘 사귀고, 낯선 문화에 대해서도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도 성인들과 비슷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최근 Tabors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이민간 어린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짧게는 몇 주에서부터 길게는 일년이 지나도록 영어를 말하지 않는 침묵의 시기 (Non-Verbal Period)가 관찰되었다. 2살에 미국에 이민 온 Panos라는 그리스계 미국 어린이는 일주일에 5일을 다니는 유아원에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겨우 영어를 말하기 시작했으며, Takahior라는 2년 6개월 된 일본 어린이는 3개월 동안 유아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래의 친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립된 생활을 했다. 반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불어를 배우는 미국 어린이의 경우 몇 달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조사결과를 보면 (Tabors, 1997)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입을 열지 않는 시기가 좀더 나이가 든 어린이들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행동을 Tabors(1997)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Children, although not cutting themselves off entirely from the

second-language situation, find ways of avoiding learning much of the second-language being used around them. In situations in which there are sufficient numbers of children who speak the same first language, some children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ir same-language friends, forming social groups on that basis. (p. 81)

이처럼 어린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스스로 인지적인 학습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조기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 다른 나라 외국어 교육 사례에서 본 조기교육의 효과

지금까지 주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서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리 어린이들이 조기영어교육에 노출되는 조건은 이민간 상황과는 달리, 주로 교실환경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교실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기언어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 2.1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 미국의 사례

조기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쉽게 외국어를 배울 것인가?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쉽게 배울 것인가? 그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된 Donato, Tucker, Wadthayagorn와 Igarashi (2000)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Donator 등 (2000)이 조사한 미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2]는 이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미국의 초등 일본어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초등 영어교육과정

국가	미국	우리나라
목표어	외국어로서 일본어	외국어로서 영어
대상 학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교육시간	주당 75분	주당 40 또는 80분
교사	일본어 원어민 교사	한국인 담임 또는 전담 교사
교육시간 배분	매일 15분씩 5일	주 1회 또는 주 2회
총 교육시간	285시간	204시간
총 교육기간	6년	4년
평균 능숙도	Novice-Mid	???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시간은 약간 적은 편이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집중되는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거의 매일 조금씩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매일 반복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한편 교사는 조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일본과 미국에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풍부한 일본인 원어민 교사인 반면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한국인 교사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경험도 대부분의 한국인 교사들이 2-3년의 단기 경험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조건이 그 연구 대상 학교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결과를 보면,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약 285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한 일본어 말하기 능력이 ACTFL 말하기 평가 기준으로 Novice-Mid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의 학교 영어교육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교육시간, 교육시간의 배분, 교육방법, 교사의 질 등을 고려해볼 때 잘하면 우리 학생들은 4년 간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통해서 겨우 Novice-Low 정도의 성취도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영어능력이면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수나 표현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의사소통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 (Breiner-Sanders, Lowe, Miles와 Swender, 2000).

## 2.2 캐나다의 불어몰입교육 사례에서 보는 나이의 효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어교육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는 경우이다. 캐나다의 불어 외국어교육은 몰입교육, 일반 외국어 교육, 핵심불어 (Core French) 교육 및 확장 불어 (Extended French) 교육 등이 있다. 몰입교육의 유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3] 캐나다 불어 몰입교육 유형

	전체	전체 교육시간의 100%
집중도	부분	전체 교과목 교육시간의 50%-80%
	일부분	전체 교과목 교육시간의 50%이하
기간	초기 몰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중기 몰입	초등학교 4학년에서 12학년까지
	후기 몰입	6-7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교 환경	몰입학교	학교 전체가 불어환경
	학교 안의 몰입센터	영어학교와 같은 건물이지만 독립적인 운영과 공간을 확보
	이중 트랙 학교	영어프로그램과 불어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

캐나다 몰입교육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몰입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조기에 몰입교육을 도입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었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이’보다는 교육시간, 노출의 양, 그리고 노출의 강도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었다 (Johnstone, 2002). 즉,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원어민 교사나 능숙한 목표어를 구사하는 교사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제공하며, 분산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몰입교육의 특징이다.<sup>3)</sup> 다음은 어느 지역의 불어 교육시간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4]는 학년별로 핵심, 확장, 몰입 불어교

3) 다음 연구들은 언어 교수방법에서 집중교육과 분산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Lightbown & Spada, 1987; Turnbull, Lapkin, Hart, & Swain, 1998; Wesche, MacFarlane, & Peters, 1994; Spada & Lightbown, 1989; Lapkin, Hart, & Harley, 1998; Collins, Halter, Lightbown, Spada,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집중교육이 분산교육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총 교육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캐나다 오타와 및 칼튼 천주교 계열 학교들의 불어교육시간<sup>4)</sup>

오타와					칼튼						
학년	핵심 불어		몰입 불어		학년	핵심 불어		확장 불어		몰입 불어	
	분/일	시간/년	분/일	시간/년		분/일	시간/년	분/일	시간/년	분/일	시간/년
유치원1	0	0	0	0	유치원1	77	231	77	231	77	231
유치원2	77	231	77	231	유치원2	77	231	77	231	77	231
1	170	510	170	510	1	85	255	85	255	85	255
2	170	510	170	510	2	85	255	85	255	85	255
3	170	510	170	510	3	85	255	85	255	85	255
4	170	510	170	510	4	85	255	85	255	85	255
5	170	510	170	510	5	85	255	85	255	85	255
6	170	510	170	510	6	85	255	85	255	85	255
7	40	120	162	486	7	40	120	73	220	243	730
8	40	120	162	486	8	40	120	73	220	243	730
9	40	120	40x4	480	9	40	120	80	240	40x6	720
10	40x3	360	40x7	840	10	40x3	360	40x5	600	40x7	840

[표 5] 오타와 및 칼튼 지역의 불어 전체 교육시간

오타와	칼튼	
요약: 핵심 불어 유치원1-6 = 3,291 시간 유치원1-9 = 3,651 시간 유치원1-10 = 4,011 시간	요약: 핵심 불어 유치원1-6 = 1,992 시간 유치원1-9 = 2,352 시간 유치원1-10 = 2,712 시간	
몰입 불어 유치원1-6 = 3,291 시간 유치원1-9 = 4,743 시간 유치원1-10 = 5,583 시간	확장 불어 유치원1-6 = 1,992 시간 유치원1-9 = 2,672 시간 유치원1-10 = 3,272 시간	몰입 불어 유치원1-6 = 1,992 시간 유치원1-9 = 4,172 시간 유치원1-10 = 5,012 시간

전체 교육시간을 보면, 10학년까지 몰입교육을 이수한 경우 5,000시간

4) 확장불어교육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확장 불어교육 프로그램은 핵심 불어와 몰입 불어교육의 중간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핵심 불어교육이 불어과목에 한해서 불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확장 불어교육 프로그램은 몰입 교육 프로그램만큼 교육시간을 확보해주지는 못하지만, 핵심 불어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출처: <http://www.occdsb.on.ca/publication/FSL/fslreport.html>)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온타리오 주 몰입교육의 경우 8학년까지 최소한 3,8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최소한 전체 교육시간의 50%이상을 불어로 실시하는 것을 몰입교육의 기본 조건으로 한다.<sup>5)</sup>

이러한 불어몰입교육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Hart, Lapkin과 Swain(1988)의 연구는 초기와 중기 몰입교육 학습자들이 8학년이 되었을 때 불어 성취도를 비교하여 몰입교육을 받은 나이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초기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체 수업의 약 50%를 불어로 교육받은 중기몰입교육 학생들보다 불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기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00% 불어로 교육받은 중기몰입교육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작했는가 하는 나이보다는 인지적 성숙도와 장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크게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urnball et. al., 1998).

한편, The Peel Board of Education in Canada (1992)에서 실시한 연구도 나이보다는 얼마나 오랜 시간 언어에 노출되고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8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조기 불어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확장불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조기 불어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 약 5,220시간의 교육을 받았고, 확장 불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1,260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의 불어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에서 초기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확장불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 나이보다는 전체 교육시간 및 교육의 집중도가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불어몰입교육 과정을 거치면 약 5,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초기, 중기, 후기에 몰입교육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언어능력은 전반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의

5) 출처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The Ontario Curriculum: French as a second language, extended French, French immersion, 2001  
([www.edu.gov.on.ca/eng/document/curricul/fsl/fsl2001.pdf](http://www.edu.gov.on.ca/eng/document/curricul/fsl/fsl2001.pdf))

순서로 나타난다 (Wesche, Toews-Janzen, & MacFarlane, 1996). 그러나 나이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먼저 초기에 몰입교육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7000-800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도 원어민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런 증거들로 보아서 초기에 조기교육을 실시해서 상당한 양의 언어입력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원어민 수준의 능숙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결정적 시기 이전에 목표언어에 노출되어도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노출되는 환경이 아닌 경우 원어민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각 영역별 능숙도를 보면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는 언제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기에 있어서는 각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언어 영역에서는 같은 집중도와 시간이면 초기몰입교육학생보다 중기나 후기의 학생들이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조기 언어 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은 캐나다 몰입교육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캐나다 불어몰입교육과 관련한 연구

연구자	비교 대상	교육방식 및 교육시간	언어 능력 비교 결과
Lapkin, Hart와 Swain (1991)	조기 불어몰입교육	1학년에 불어몰입교육 시작, 3학년에 영어교육 시작, 5학년부턴 불어/영어를 50/50으로 교육 (전체 5300-6040시간)	8학년에 불어능력을 측정 4가지 언어기능에서 조기 불어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기 학생들보다 우수
	중기 불어몰입교육	전체 수업시간의 50%, 5학년에 시작 (전체 2040시간)	말하기에서 조기몰입이 우수 (예외, 의견을 개진하고 논지를 펼치는 평가는 예외) 읽기와 듣기: 차이는 덜 뚜렷했다. 8학년 이후에 두 집단을 합쳐서 교육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봄.

Hart, Lapkin,과 Swain (1988)	조기 불어몰입교육 중기 불어몰입교육		조기 불어 몰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기 학습자들 보다 우수
The Peel Board of Education (1992)	조기 불어몰입교육 확장 불어교육*	8학년까지의 전체 교육 시간 5220시간 8학년까지의 전체 교육 시간 1260시간	8학년말에 불어 능력을 측정 듣기, 말하기, 및 읽기에 서 조기 불어몰입교육 학생들이 확장 불어교육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
Dicks (1994)	조기 불어몰입교육 중기 불어몰입교육 후기 불어몰입교육		초기, 중기, 후기 순서로 불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읽기나 쓰기에는 그룹들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듣기 말하기 능력에서는 조기 학습자들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Harley (1991)	조기 불어몰입교육 후기 불어몰입교육		중등학교 과정에서 불어 능력을 측정한 결과 후기 학습자들이 읽기와 쓰기에서는 조기 학습자들과 비슷. 그러나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조기 학습자들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The Carleton Board of Education (1996)	조기 불어몰입교육 중기 불어몰입교육 후기 불어몰입교육	초등학교 1학년 100% 불어로 교육 2-5학년 80% 불어로 교육 5-8학년 50% 불어로 교육 4-6학년 80% 불어로 교육 7-8학년 50% 불어로 교육 7-8학년 80% 불어로 교육	모든 유형의 몰입교육 학생들이 일반 불어 외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우수 조기, 중기, 후기 순서로 불어 습득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Kowal과 Swain (1997)	불어 몰입교육 원어민		듣기와 읽기와 같은 이해 능력에서는 원어민과 차이가 없지만, 생산적인 측면인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원어민과 차이.

이러한 몰입교육의 유형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표 7]은 다른 나라의 몰입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조기에 언어교육을 실시해도 전체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목표언어로

이루어지는 몰입교육환경에서도 1-2년이 경과한 후에도 학생들의 능숙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isdell(1999)이나 DeCourcy 등(1999)의 연구에서 보면 2년이 경과해서 겨우 문장단위의 발화를 하기 시작하며, 그것도 상당 부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6)</sup>.

[표 7] 다른 외국의 외국어 몰입교육 사례

연구자	대상	교육방식 및 교육시간	언어 능력 결과
Tisdell (1999)	부분 독어몰입교육 (호주)	1-6학년 전체 수업의 30%를 독어로 수업 과학과 사회과목 독어로 수업 (매일 90분간) 1년차 262시간 2년차 524시간 3년차 786시간	1년차: 한 단어 정도 말하기, 1년 정도 경과 후 에 2명의 학생은 교사가 말하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 2년차: 문장 발화 3년차: 보다 긴 복잡한 문장을 발화 4년차: 일부는 독어를 말하는데 자신이 없으며,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줌
Thomas, Collier, & Abbott (1993)	초기 부분 몰입교육 (미국)	초등학교 1-3학년 4개 학교: 스페인어 3개 학교: 일본어 1개 학교: 불어 전체 수업시간의 1/2를 몰입교육 언어로 가르침.	세 그룹이 모두 몰입언어에 대한 언어능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Clyne (1991)	부분 몰입교육 (호주)	대상: 초등학교 모형 A: 독일어 부분 몰입교육. 일주일에 5시간 모형 B: 독일어 부분 몰입교육. 일주일에 2.5시간 모형 C: 모형 A와 모형 B의 중간 형태	학생들의 능숙도를 보면 단연 모형 A 그룹이 가장 높은 독일어 성취도를 보여줌 (시간과 강도의 요인이 결정적인 중
DeCourcy, Burston, & Warren (1999)	부분 몰입교육 (호주, 멜본)	대상: 초등학교 전체 학교 교육의 45%를 몰입 언어인 불어로 교육 과목: 수학, 체육, 미술	2년이 지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4단계까지의 성장을 보여줌.

6) DeCourcy 등(1999)의 연구에서 2년차 학생들이 보여주는 4단계는 발전단계 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의 일치가 안되고, 영어어순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오류를 보여줌.

### III. 결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조기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란이 있다.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어릴수록 다른 나라의 말을 잘 배울 수 있다 (the Younger, the Better)’ 그리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the Critical Period)’는 가설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체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어린이에게 그들만의 타고난 언어습득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린이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언어능력에서 청소년이나 성인들보다 우수한 것은 아니며, 나이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나 실증적인 실험들은 영어와 같은 목표언어에 거의 매일 많은 시간 노출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를 미국, 영국, 호주 또는 기타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배우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그 이외의 상황에서 (예,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셋째, 조기영어교육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다른 시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면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언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 조사된 관련 문헌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와 같은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1. 제2언어습득에서 나이의 효과는 어느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2.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절대적 시기 가설’을 적용하는 것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절대적 시기 가설’에 근거해서 영어교

육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4. 또한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영어교육은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5.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는 '나이'보다 전체 '교육시간'이라는 언어입력의 양을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
6.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영어 조기교육의 의미와 효과는 단지 전체 영어교육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7. 영어 교육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적으로 성숙되고 자신의 인지활동에 대한 의식적 조작과 통제가 가능한 청소년기(10세-13세)에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8. 목표어 환경에 몰입하지 않는 외국어 교육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을 통해서 원어민 수준의 성취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기영어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선택의 문제이며, 둘째는 그러한 선택을 기반으로 영어교과과정상의 대안이다.

1. 선택의 문제: 추가적인 언어(Additional Language)인가? 아니면 외국어인가?

우리가 고려할 점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도달해야 할 영어 수준이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면,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모국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교육을 지나치게 시키는 경우 인지적 정서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른 중요한 교과목들인 국어나 수학 또는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을 희생시켜가면서 영어에 조기에 노출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물어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영어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영어가 단순히 여러 외국어의 하나로서보다는, 추가적인 언어 또는 제2언어로 변해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여진다. 학부모의 기대나 사회의 변화와는 상반되게, 현실적인 국가 영어 교과과정은 그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전통적인 외국어 교과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영어교과과정의 불일치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 보아서는 사교육에 의해서 영어교육이 주도될 것이며, 결국 부모들의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 영어교과과정의 정책적 대안

우리 사회에 영어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구사력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나라면, 분명 현재의 영어 공교육은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교육시간과 내용으로는 아무리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서 별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sup>7)</sup>. 특히 읽기를 제외하고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그렇다고 조기에 영어몰입교육 형태와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은 필요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비용의 측면에서 권장할 만 내용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주요 교과과목을 영어로 교육시키는 부분적인 영어몰입교육 형태나, 또는 대학의 영어관련학과에서 몰입교육 형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고려하면, 우리도 부분적 몰입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렇게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면 된다.

결론으로 언어 능력은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주장이다. 그리고 외국어

7) 현재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영어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약 730시간이다. 이러한 적은 양의 시간을 다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 기능으로 나누면, 듣기 및 말하기 활동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약 400시간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극히 제한적인 교육시간으로 영어 능숙도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환경에서 조기영어교육은 그 효과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단지 전체적인 교육시간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조기영어교육은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 참 고 문 헌

- Asher, J. & Garcia, G. (1969). The optimal 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31,334-341.
- Bialystok, E. (1997). The structure of age: In search of barrier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13, 116-137.
- Bialystok, E. & Hakuta, K. (1994). *In other words: The science and psychology of second-language acquisition*. Basic Books
- \_\_\_\_\_. (1999). Confounded age: Linguistic and cognitive factors in age differences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Birdsong, 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Mahwah: Lawrence Erlbaum.
- Birdsong, D. (1992). Ultimate attainment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68(4), 706-755.
- \_\_\_\_\_. (1999). Introduction: Why and why not of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Birdsong, 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Mahwah: Lawrence Erlbaum.
- \_\_\_\_\_. (2001). Interpreting Age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trieved October 11th, 2002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Department of French and Italian Web site: [http://ccwf.cc.utexas.edu/~birdsong/publications/birdsong\\_1-4-02\\_interpr\\_age.pdf](http://ccwf.cc.utexas.edu/~birdsong/publications/birdsong_1-4-02_interpr_age.pdf)
- Birdsong, D., & Molis, M. (2001). On the evidence for maturational constraints in second-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35-249.

- Bongaerts, T., Planken, B., & Schils, E. (1995). Can late starters attain a native accent in a foreign language? A test of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In Singleton, D. & Z. Lengyel (eds.), *The ag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 \_\_\_\_\_ (1997). Age and ultimate attainment in the pronunciation of a foreign language. *Second Language Research*, 19, 447-465.
- Breiner-Sanders, K. E., Lowe, P., Miles, J., & Swender, E. (2000). ACTFL proficiency guidelines-Speaking revised 1999. *Foreign Language Annals*, 33(1), 13-18
- Carleton Board of Education. (1996). *Comparative outcomes and impacts of early middle and late entry French immersion options: review of recent research and annotated bibliography*. Ottawa: Carleton Board of Education.
- Clyne, M. (1991). Immersion principles in second language programs - research and policy in multicultural Australia.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12(1), 55-65.
- Collins, L., Halter, R. H., Lightbown, P., & Spada, N. (1999). Time and the distribution of time in L2 instruction. *TESOL Quarterly*, 33(4), 655-677.
- Coppieters, R. (1987). Competence differences between native and fluent non-native speakers. *Language*, 63, 544-573.
- DeCourcy, M., Burston, M. & Warren, J. (1999). Interlanguage development in the first three years of a French bilingual program. *Babel*, 34(2), 14-19.
- DeKeyser, R. D. (2000). The robustness of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2, 499-533.
- Dicks, J. (1994). *A comparative study of the acquisition of French verb tense and aspect in early, middle and late French*

- immersio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Ottawa.
- Donato, R., Tucker, G. R., Wudthayagorn, J., & Igarashi, K. (2000). Converging evidence: Attitudes, achievements, and instruction in the later years of FLES. *Foreign Language Annals*, 33(4), 377-393.
- Flege, J. (1999). Age of learning and second language speech. In Birdsong, D. (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Mahwah: Lawrence Erlbaum.
- Flege, J., Frieda, E. M., & Nozawa, T. (1997). Amount of native-language (L1) use affects the pronunciation of an L2. *Journal of Phonetics*, 25, 169-186.
- Flege, J. E., Takagi, N., & Mann, V. (1995). Japanese adults can learn to produce English /r/ and /l/ accurately. *Language and Speech*, 38, 25-55.
- Flynn, S. & Manuel, S. (1991). Age-dependent effects in language acquisition: An evaluation of "critical period" hypotheses. In L. Eubank (Ed.), *Point 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pp. 117-145). Amsterdam: Benjamins.
- Harley, B. (1991).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SLA in early French immers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5, 245-249.
- Harley, B. & Hart, D. (1997). Language aptitude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in classroom learners of different starting ag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 379-400.
- Hart, D., Lapkin, S., & Swain, M. (1988). *Early and middle immersion programs: Linguistic outcomes and social character*.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Ioup, G., Boustagui, E., El Tigi, M, & Moselle, M. (1994). Re-examining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A case study of successful adult SLA in a naturalistic environ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73-98.

- Johnson, J. S. (1992).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effects of written versus auditory materials on the assessment of grammatical competence. *Language Learning*, 42, 217-248.
- Johnson, J. & Newport E.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SL. *Cognitive Psychology*, 21, 60-99
- \_\_\_\_\_. (1991) 'Critical period effects on universal properties of language: the status of subadjacency in a second language', *Cognition*, 39, 215-68
- Jonstone, R. (2002). Immersion in a second or additional language at school: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Retrieved on October 11th, 200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scilt.stir.ac.uk/PDFfiles/Immersion/Summary.pdf>
- Kowal, M. and Swain, M. (1997). *From semantic to syntactic processing: How can we promote it in the immersion classroom?*
- Krashen, S. D., Long, M. A., & Scarcella, R. C. (1979).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3(4), 573-582.
- Lapkin, S., Hart, D., & Swain, M. (1991). Early and Middle French Immersion Programs: French Language Outcome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8(1), 11-40.
- Lapkin, S., Hart, D., & Harley, B. (1998). Case study of compact core French models: Attitudes and achievement. In S. Lapkin (Ed.), *French second language education in Canada: Empirical studies* (pp. 3-30).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 Lightbown, P. M. & Spada, N. (1987). *Learning English in intensive programs in Quebec schools (1986-87): Report on the first year*

- of research*. Montreal: Concordia University.
- Marinova-Todd, S., Bradford Marshall, D., & Snow, C. E. (2000). Three misconceptions about age and L2 learning. *TESOL Quarterly*, 34(1), 9-34.
- McVey, M., Bonyun, R., Dicks, J. and Dionne, L. (1990). *Early, middle or late? Ottawa Board of Education learners in three French immersion programmes in grade 6 and grade 8*. Ottawa, ON: Ottawa Board of Education.
- Moyer, A. (1999). Ultimate attainment in L2 phonolog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 251-286.
- Munro, M., Flege, J., & MacKay, I. (1996). The effects of age of second language learning on the production of English vowels. *Applied Psycholinguistics*, 17, 313-334.
- Neufeld, G. G. (1978). On the acquisition of prosodic and articulatory features in adult language learning.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4, 163-174.
- Oyama, S. (1976) A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a non-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inguistics Research*, 5, 261-285
- Patkowski, M. (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30, 449-472.
- Peel Board of Education. (1992). *Immersion and extended French program review*. Mississauga, Peel Board of Education, Research and assessment.
- Schachter, J. (1990). On the issue of completenes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6, 93-124.
- Slavoff, G. & Johnson, J. S. (1995). The effects of age on the rate of learning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 1-16.
- Snow, C. & Hoefnagel-Hoehle, M. (1978).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rom second language learning,

- Child Development*, 49, 1114-1128.
- Snow, C. and Hoefnagel-Hoehle, M. (1977) Age differences in the pronunciation of foreign sounds, *Language and Speech*, 20, 357-365.
- Sorace, A. (1993). Incomplete vs. divergent representations of unaccusativity in non-native grammars of Italian. *Second Language Research*, 9, 22-47.
- Spada, N. & Lightbown, P. (1989). Intensive ESL Programmes in Quebec Primary Schools. *TESL Canada Journal*, 7(1), 11-32.
- Tabors, P. O. (1997). *One child, two languages*. Baltimore, MD: Paul Brookes Pub.
- Tahta, S., Wood, M., & Loewenthal, K. (1981). Foreign accents: Factors relating to transfer of accent from the first language to a second language. *Language and Speech*, 24, 265-272.
- Thomas, W. P., Collier, V., & Abbott, M. (1993).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Japanese, Spanish or French. The first two years of partial immers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7(2), 170-79.
- Tisdell, M. (1999). German language production in young learners taught science and social science through partial immersion in German. *Babel*, 34(2), 26-30.
- Turnbull, M., Lapkin, S., Hart, D., & Swain, M. (1998). Time on task and immersion graduates' French proficiency. In S. Lapkin (Ed.), *French as a second language education in Canada: Recent empirical studies* (pp. 31-55).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Wesche, M., MacFarlane, A., & Peters, M. (1994). *The bain linguistique : A core French experiment at Chruchill Alternative School 1993-94*. Ottawa, Canada: University of Ottawa.
- Wesche, M., Toews-Janzen, M., & MacFarlane, A. (1996).

*"Comparative Outcomes and Impacts of Early, Middle and Late French Immersion Options: Review of Recent Research and Annotated Bibliography."* Research Report, Ottawa Board of Education.

White, L. & Genesee, F. (1996). How native is near-native? The issue of ultimate attainment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12(3), 233-265.